

90장 -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1)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 (2)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 쏘나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70장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9월 14일(금) 기도 담당 : 박종학 집사

2018년 9월 13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90장 다 같 이
기 도 최광국 집사
성 경 봉 독 시편 54편 1~7절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신앙의 진면목이 들어날 때』 이신기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70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시편 54: 1~7절 >

1)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 하나님이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 낮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4)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6)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9월 13일(목)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쉼을 누리시고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 가장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로인해 구원을 확신하며 매일의 삶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이 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새문안 교회를 131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문안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맡겨진 목양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완공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103회 교단 총회가 오늘로서 마무리 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총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